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건강한 먹을거리 나누는 '자연생태마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데스크승인 2014.03.17 김문기 기자 | kafka71@jejunews.com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는 물이 귀한 중산간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조수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인 1610년 속칭 '용선달리'에 전주 이씨 일가족이 처음 입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축도 기르게 되자 물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 설촌(設村)당시에는 속칭 '구멍목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식수로 쓰는 데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 '구멍목야' 물은 이후 물 줄기가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주민들은 식수 가축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마을 이름은 '조호수리'라 불리다 1820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명됐다.

'물을 만드는 마을'이라는 마을 이름도 이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과거 파놓은 연못 26개가 남아있다.

조수1리는 2007년 환경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 청년회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심팡'과 '무인 사랑의 농산물 오두막'이 입소문을 타며 마을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주올레 13코스에 자리한 '무인 심팡'은 올레꾼을 청년회원들이 직접 지은 오두막 형태의 무인 카페다.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올레꾼들이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인근 도로변에는 무인 농산물장터가 자리잡고 있다. 농산물장터에는 조수리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팔린다. 브로콜리, 유채나물, 호박고구마, 고추, 찰보리쌀, 양배추, 무, 콜라비, 감귤 등 종류도 다양하다. 농산물을 구입한 후 인근에 설치된 우체통에 1000원을 넣으면 된다.

지난해에는 제주시로부터 '베스트 특화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사업비 5000만원을 활용해 무인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문화공간을 갖춘 '농부의 아침'이 문을 열었다.

무인 농산물장터와 '농부의 아침'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마을 청년들이 직접 재배한 것들이다.

수확시기에 맞춰 제철 농산물이 진열된다. 지금은 보리나 콩을 일부러 갖다놓는 주민들도 부쩍 늘었다.

이곳에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한경면 관내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지난해 수익금 429만원 전액도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됐다.

'농부의 아침'에는 향토자료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주민들이 기증한 각종 농기구를 비롯해 곤로, 고무신, 엇장수 가위, 인두 등 1950~1970년대 생활 용품을 만날 수 있다.

2012년에는 마을기업이 설립됐다.

마을 특산물인 참깨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참지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참기름과 유채기름, 고춧가루, 미숫가루 등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하고 있다.

청년회에서 무인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농촌에 무슨 농산물 판매장이냐'며 탐탁찮게 여겼지만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과 올레꾼들이 늘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이처럼 청년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주민들도 늘었다.

조수1리는 올해부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농촌체험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농부의 아침'에 조성된 향토문화 전시관을 제주의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체험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을 곳곳에 장미꽃을 심는 등 사시사철 꽃이 있는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

마을 곳곳에 분포된 연못을 연결하는 탐방로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간다는 구상도 세웠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